

통근·통학 및 주간인구

은기수
(서울대학교)

I. 연구목적과 대상

1. 연구목적

인구학에서 인구이동은 주로 1년 전 거주지 혹은 5년 전 거주지를 파악해서 현재의 거주지와 비교한 후 지난 1년 동안 혹은 지난 5년 동안 인구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파악한다. 그러나 인구이동은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인구현상임을 떠올린다면 1년 전 혹은 5년 전 거주지를 파악하고 현재의 거주지와 비교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인구이동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연구는 인구이동의 실상을 제대로 밝힐 수 없는 가능성도 있다. 더구나 이 정보를 이용하여 출발지와 목적지를 판별하는 인구이동 연구는 자칫 잘못하면 인구이동의 실상을 왜곡시킬 위험성도 안게 된다.

농촌에서 도시로 대규모의 인구이동이 일어나는 근대화 초기에는 1년 전 혹은 5년 전 거주지와 현재의 거주지를 비교하여 비교적 장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가 타당성을 지닌다. 그러나 인구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살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의 거점을 중심으로 대도시권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인구이동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인구이동도 중요해진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일일 인구이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통근통학인구 혹은 주간인구라고 불리는 인구개념이 바로 매일 일어나는 인구이동에 관련된 인구개념이다.

서울을 예로 들면, 1960년대에 도시를 중심으로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농촌에서 도시로 대규모의 인구이동이 시작되었다. 인구이동의 최종 목적지는 주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였다. 서울의 경우, 농촌에서 물밀듯 몰려오는 인구이동자를 모두 서울에서 소화할 수 없었다. 대규모의 농촌에서 도시로 밀려오는 인구를 수용한 주택이 부족했고, 모든 기반시설이 부족했다. 따라서 농촌에서 도시로 밀려오는 이농민들은 서울에서 직업을 찾고 일을 하더라도 잠자리는 서울에 마련하지 못해 서울 주위의 경기도에 마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럴 경우 아침 출근시간과 저녁 퇴근시간이 되면 서울 외곽에서 서울 내로 들어가려는 인구가 끝이 없었고, 이들을 수용할 교통시설이 항상 문제가 되었다.

다른 한 편, 현대사회는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로 존재한다. 물론 고정된 일자리도 있지만, 일터는 언제나 변할 가능성이 있고, 자녀교육을 위한 학교도 고정된 위치에 있지 않고 초, 중, 고, 대학교 등 학년에 따라 수시로 달라지게 된다. 일터와 직장이 불일치하지 않고, 거주지와

직장이 별개로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일일 인구이동은 인구학의 새로운 연구주제뿐만 아니라 교통과 주택 등의 행정의 핵심관심이 되었다.

이 분석은 2005년 인구센서스 2% 원자료를 가지고 일일 인구이동 현상을 이해하려고 한다. 전국적인 차원의 일일 인구이동도 간단히 언급한 후 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일일 인구이동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미 본 분석을 실시하는 필자는 1995년과 2000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해서 1995년과 2000년의 일일 인구이동을 분석했었기 때문에(은기수, 2002) 이미 이루어진 연구를 기반으로 2005년 인구센서스를 분석한 결과를 연결하여 1995년부터 2005년 사이에 일일 인구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더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일일 인구이동이 더 적합한 표현이겠지만,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인구센서스에서는 통근통학자라는 개념과 주간인구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 인구이동이라는 표현대신에 통근통학인구와 주간인구 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일일 인구이동의 특성을 밝혀보려고 한다.

2. 연구대상

인구학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인구개념은 상주인구이다. 인구를 파악할 때는 상주주의(de jure principle)와 현주주의(de facto principle)의 개념에 의해 파악한다(권태환·김두섭, 2002). 어느 방식으로 파악하든지 그 인구는 상주인구라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실제로 우리나라 센서스에서는 조사당시 개개인이 머무르고 있는 지역에서 파악되어야 하지만, 통상적으로 거주하거나 15일 이상 머무를 목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곳이 상주지가 되기 때문에 센서스 당시 일시적으로 이동중이라면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곳에서 파악된다. 따라서 이동중인 사람이 머무는 숙박지에서 파악되지는 않는다. 이런 원칙으로 파악된 인구가 상주인구이다.

그러나 상주인구는 인구학적으로는 매우 유용하지만, 행정의 측면에서는 상주인구 이외의 새로운 인구개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각종 행정서비스를 유발하는 인구는 상주인구가 아닌 유동인구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유동인구는 정확한 측정이 힘들고, 국가통계기관인 통계청에서 산출하기 힘들기 때문에 상주인구와 유동인구 이외의 인구를 통계 산출이 가능한 인구개념이 필요하다. 여기에 가장 유효한 인구개념이 바로 주간인구다. 주간인구는 상주인구와는 달리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에 어느 특정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인구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일단 상주인구가 포함되지만, 상주인구 가운데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가 활동하는 인구는 제외되고, 아울러 다른 지역에 상주하지만 활동하는 시간대에는 이 특정 지역에 유입되어 활동하는 인구가 포함된다. 이를 간단히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은기수, 2002: 526).

$$\begin{aligned} \text{주간인구} &= \text{상주인구} + \text{주간유입인구} - \text{주간유출인구} \\ &= \text{비통근·통학자수} + \text{지역내 통근·통학자수} \\ &\quad + \text{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통근·통학자수} \end{aligned}$$

이 연구에서 다루는 일일 인구이동은 바로 이 주간인구를 다룬다. 상주인구를 기본으로 하면서 매일 생활 가운데 통근·통학을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나가는 인구를 제외하고, 반면에 다른 지역에 상주하면서 통근·통학을 통해 이동해 오는 인구를 합한 인구가 주간인구이고,

바로 이들은 일일 인구이동을 하는 인구를 포함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단 전국적인 차원에서 일일 인구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일일 인구이동을 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살펴본다. 이 연구를 위해서는 1995년과 2000년 그리고 2005년의 인구및주택총조사 보고서와 해당년도 인구센서스의 2% 표본 원자료가 이용된다.

II. 기존 연구 검토

일일 인구이동에 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2000년 인구센서스를 이용해 주간인구를 분석하면서 기존의 연구를 검토해 보았을 때에도 필자의 연구 외에는 아직 일일 인구이동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일일 인구이동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미 5년 전에 출판된 은기수(2002)의 연구에서 간단히 기존의 연구를 검토한 바 있는데, 이미 이루어진 기존연구를 다시 한번 간단히 점검하기도 한다.

주간인구라는 새로운 인구개념이 각광을 받게 된 것은 어쩌면 우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교통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부처는 사람들이 공부나 일을 하기 위해 어디서 어디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 이동하고 어느 시간대에 얼마나 시간이 걸려 이동하는지 정보를 얻고 싶어 했다. 그래서 인구센서스에 통근·통학 및 주간인구라는 조사항목이 포함되었다. 다른 한편, 대도시 중심부의 구청장들은 새로운 문제에 봉착해 있었다. 과거 관선구청장 시절에는 각 대도시의 중심부가 가장 중심 구청이었고, 구청장 자리도 요직이었다. 그러나 민선구청장으로 바뀌면서 상주인구를 중심으로 구청장의 위세가 결정되고, 정부의 각종 교부금도 상주인구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중심구의 경우 상주인구는 다른 주변구보다 상대적으로 적지만, 모든 행정, 금융, 서비스 시설 등이 주로 중심구에 몰려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는 다른 주변구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행정서비스를 상주인구보다도 유동인구가 더 많이 유발하였다. 따라서 대도시 중심구 협의회는 상주인구보다는 자신들에게 여러 면에서 유리한 새로운 인구개념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은기수(1997)는 서울시 중구청이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에 의뢰한 중구 장기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 이루어졌다. 서울시 중구는 실질적으로 상주인구보다는 유동인구를 새로운 행정인구개념으로 확정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은기수가 보기에 유동인구는 공식적인 통계 산출이 어려웠다. 그렇다고 해도 상주인구는 행정의 측면에서는 부족한 인구개념이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산출하고 있는 인구개념을 살펴본 바, 주간인구 개념이 현재 상태에서 중심구에 가장 적합한 인구개념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통계청에서도 인구센서스를 통해 통계치가 산출되고 있고, 일일 인구이동의 개념에 걸맞으며, 이해관계가 걸린 여러 기관에서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인구개념으로 주간인구개념을 제시하였다.

또 다른 필자의 연구는 2000년에 출판된 도심부의 연구에 수록되어 있다(은기수, 2000). 이 연구는 도심부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인데, 은기수는 이 연구에서 중심부의 상주인구와 주간인구를 대비시키면서 날이 갈수록 상주인구는 감소하고 반면에 일하는 인구의 규모는 여전히 많은 현상을 대비시켜 도심부의 공동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대도시는 새롭게 리모델링을 통해 젊은이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다시 도심부로 이동하고 있지만, 한국 특

히 서울의 도심부는 도심부에 거주하고 있다 떠난 인구가 되돌아오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도심부를 떠나고 있기 때문에 도심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필자는 일일 인구이동을 좀더 사회학적인 개념에 연계하여 분석하였다(은기수, 2001). 이 연구는 서울 및 인근 외곽지역에서 일일 인구이동을 하고 있는 인구를 중심으로 그들의 계급적인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누구는 도심에 살고 있고, 그 지역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지, 누구는 도심에 살지 않지만, 생업은 도심에서 영위하고 있는지, 그들의 계급적 지위는 어떻게 다른지 등을 검토하면서 사회학계에서 최초로 일일 인구이동을 경험하는 집단과 생활의 장소에 머무르면서 생업을 종사하는 집단의 계급적인 성격을 규명하였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는 은기수의 2002년 연구이다. 이 연구는 2000년 센서스가 일반인에게 공개된 것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2000년 및 그 이전의 인구센서스 자료를 가능한 거슬러 올라가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추세의 변동을 살피고, 통근·통학의 동학을 살펴보려는 것이었다. 은기수(2002)의 연구를 통해 2000년까지 일일 인구이동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었고,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내에서 일일 인구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서울에서 서울 밖으로 나가는 인구들은 누구이고, 어디로 이동하는지, 또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서울로 일일 인구이동하는 인구는 누구이고, 서울의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은기수(2002)의 연구를 계승하고 있다. 거의 동일한 문제의식 하에서 2000년까지의 일일 인구이동의 특성이 2005년의 인구센서스의 결과까지 이어보면 어떤 연속성과 단절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III. 전국 통근·통학인구

먼저 전국적인 수준에서 통근·통학인구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주간인구를 구성하는 인구의 핵심적인 한 요소가 바로 통근·통학인구 이기 때문에 먼저 전국적인 수준에서 통근·통학인구의 실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통근·통학인구 및 주간인구

다음 <표 1>은 1995, 2000, 2005년 등 세 시점에서 전국의 각 지역에서 통근·통학인구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통근·통학인구가 핵심적인 요소인 주간인구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표 1>을 보면 각 지역의 인구 가운데 매일 통근·통학하는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60%대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995년의 경우 각 지역의 상주인구 가운데 통근·통학하는 인구가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역은 대구로 60.9%였다. 서울의 경우 전체 인구의 64.6%가 통근·통학을 했다. 전국 각 지역에서 통근·통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지역으로 제주 전체 인구의 70.6%가 통근·통학인구였다.

<표 1> 전국 지역별 통근·통학인구비율 및 주간인구지수

| 지역 | 통근·통학인구비율 | | | 주간인구지수 | | |
|----|-----------|------|------|--------|------|------|
| | 1995 | 2000 | 2005 | 1995 | 2000 | 2005 |
| 서울 | 64.6 | 63.7 | 61.3 | 105 | 105 | 106 |
| 부산 | 61.5 | 58.7 | 56.5 | 98 | 98 | 98 |
| 대구 | 60.9 | 58.9 | 57.6 | 96 | 97 | 96 |
| 인천 | 63.1 | 63.1 | 61.6 | 96 | 95 | 95 |
| 광주 | 62.9 | 61.2 | 60.9 | 98 | 98 | 97 |
| 대전 | 62.0 | 61.5 | 60.0 | 98 | 99 | 98 |
| 울산 | - | 63.0 | 62.6 | - | 101 | 101 |
| 경기 | 62.8 | 63.9 | 62.6 | 93 | 95 | 95 |
| 강원 | 61.6 | 60.7 | 57.8 | 101 | 101 | 101 |
| 충북 | 64.6 | 64.6 | 61.5 | 101 | 101 | 101 |
| 충남 | 66.3 | 66.1 | 65.1 | 103 | 104 | 105 |
| 전북 | 65.8 | 63.5 | 59.8 | 100 | 100 | 100 |
| 전남 | 68.4 | 66.9 | 62.4 | 101 | 101 | 102 |
| 경북 | 65.0 | 63.4 | 61.8 | 104 | 103 | 104 |
| 경남 | 65.6 | 64.2 | 62.7 | 102 | 102 | 101 |
| 제주 | 70.6 | 68.9 | 56.7 | 100 | 100 | 100 |

주: 주간인구지수=주간인구/상주인구*100

자료: 1995, 2000, 2005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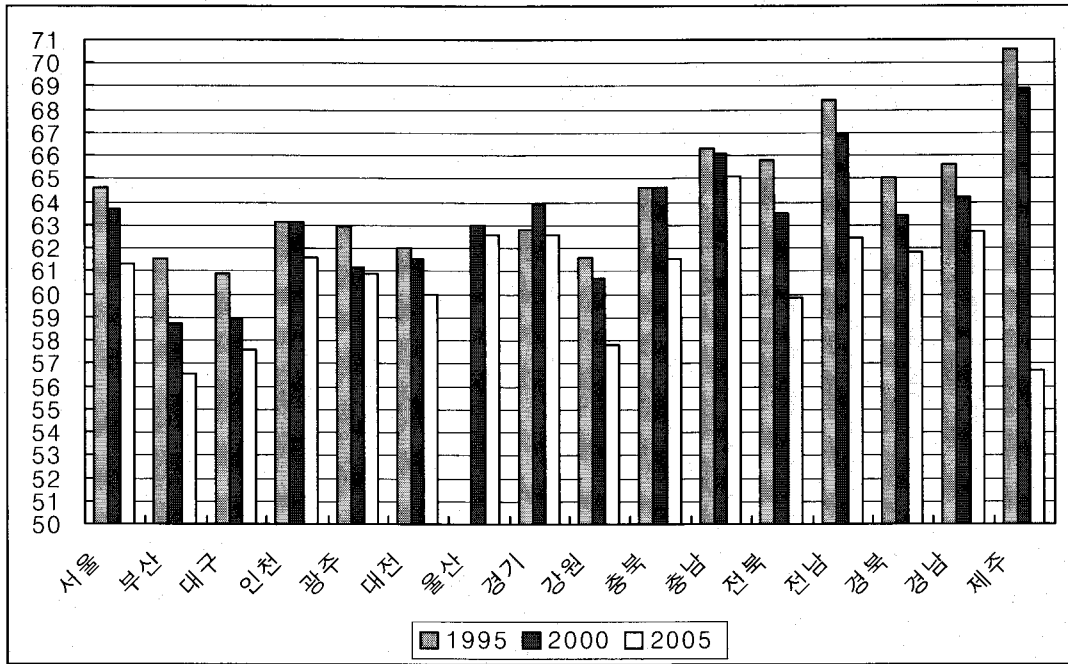
2000년에는 통근·통학인구의 비율이 60% 이하로 내려간 지역이 나타났다. 부산과 대구의 전체 인구가운데 통근·통학하는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에는 각각 58.7%와 58.9%로 나타나 통근·통학인구가 전체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60%를 약간 하회하였다. 서울의 인구 가운데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비율도 63.7%로 1995년에 비해 약간 낮아졌다. 2000년에 통근·통학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제주 지역에서도 68.9%로 이전의 70%에 약간 못 미쳤다. 전반적으로 2000년은 1995년에 비해 전국적으로 통근·통학인구가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경기 지역이 1995년에 62.8%에서 2000년에 63.9%로 약간 상승했을 뿐 나머지 시도지역에서는 통근·통학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2005년에도 여전히 관찰되고 있다. 2005년에는 전체 인구 가운데 통근·통학하는 인구가 60% 이하인 지역이 더 늘어났다. 부산 56.5%, 제주 56.7%, 대구 57.6%, 강원 57.8%, 전북 59.8% 등 전국에서 5개 시도의 통근·통학인구가 전체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60% 아래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에도 2005년에 통근·통학하는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61.3%로 낮아졌다. 전체 인구 가운데 통근·통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으로 65.1%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보면 1995년 이래 전체 인구 가운데 통근·통학하는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다음 <그림 1>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통근·통학인구의 감소는 제주도에 가장 두드러지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제주만큼 극적이지는 않지만 2005년으로 오면서 통근·통학인구의 감소가 전반적인 추세로 관찰되고 있다.

<그림 1> 통근·통학인구의 변화: 1995, 2000, 2005



통근·통학인구의 감소는 주간인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한 지역에서 통근·통학인구가 유출되면 주간인구가 줄어들고, 통근·통학인구가 유입되면 주간인구가 늘어난다. 결국 유입과 유출인구의 차이에 의해 어느 특정지역의 주간인구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만, 일단 통근·통학인구의 절대적 규모의 감소로 주간인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분명하다.

위의 <표 1>은 주간인구지수의 변화도 아울러 보여주고 있다. 만약 일일 인구가동이 시나 도의 경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유입과 유출은 서로 상쇄되어 주간인구의 규모나 상주인구의 규모는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 주간인구지수는 주간인구를 상주인구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값으로 산출되는데, <표 1>에 따르면 전국의 각 시도의 주간인구지수는 2005년 현재 최소 95(인천)에서부터 최고 106(서울)으로 나타난다. 즉 인천은 주로 인구가 일일 인구가이동을 통해 인천 밖으로 유출되는 인구가 많고, 반면에 서울은 일일 인구가이동을 통해 서울에 상주하지는 않지만 서울로 들어와 일을 하는 인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서울은 1995년 이래 전체 인구 가운데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였지만, 주간인구지수는 1995년과 2000년 현재 105에서 2005년에는 106으로 약간 상승하였다. 즉 서울 내에서 통근·통학을 하는 인구는 감소한 반면 주간에 서울 외에서 서울로 유입하는 인구가 1995년이나 2000년에 비해 약간 더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 다음으로 주간인구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지역은 충남이다. 충남의 1995년 현재 주간인구지수는 103이었지만, 2000년에는 104로 그리고 2005년에는 105로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반면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등에서는 주간인구가 상주인구에 못 미치고 있다. 즉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지역에서는 통근·통학으로 유출되는 인구가 유입되는 인구보다 더 많은 것이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상주인구에 비해 주간에 활동하는 인구인 주간인구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어디인가? 다음 <표 2>는 주간인구지수 120이상인 지역을 골라 주간인구지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995년 이래 주간인구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의 중구이다. 서울 중구의 상주인구는 급속히 감소하여 2005년 현재 128,443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서울의 중구는 서울의 최도심부이고 현재도 정부기관, 각 회사의 본점, 금융기관, 백화점 등 서비스업의 본점이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상주인구는 적지만 상대적으로 주간에 서울 중구에 출근하여 일을 하는 주간인구는 많고, 이를 주간인구 대 상주인구의 비로 계산하면 전국에서 가장 주간인구지수가 높은 지역이다. 1995년에는 주간인구지수가 395로 상주인구에 비해 주간인구의 규모가 거의 4배에 이르렀다. 2000년에는 주간인구지수가 295로 상주인구에 비해 주간인구의 규모가 3배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급감하였지만, 2005년에는 다시 주간인구지수가 354로 증가하였다.

<표 2> 주간인구지수 120 이상인 시구, 1995-2005

| 1995 | | 2000 | | 2005 | |
|--------|--------|--------|--------|--------|--------|
| 지역 | 주간인구지수 | 지역 | 주간인구지수 | 지역 | 주간인구지수 |
| 서울중구 | 395 | 서울중구 | 292 | 서울중구 | 354 |
| 부산중구 | 249 | 서울종로구 | 216 | 서울종로구 | 251 |
| 서울종로구 | 244 | 부산중구 | 191 | 부산강서구 | 213 |
| 인천중구 | 191 | 대구중구 | 168 | 부산중구 | 197 |
| 대구중구 | 167 | 서울강남구 | 166 | 대구중구 | 186 |
| 서울강남구 | 160 | 인천중구 | 145 | 서울강남구 | 182 |
| 서울영등포구 | 150 | 광주동구 | 141 | 인천중구 | 171 |
| 광주동구 | 140 | 서울영등포구 | 138 | 서울서초구 | 140 |
| 서울용산구 | 135 | 부산강서구 | 133 | 광주동구 | 140 |
| 대전유성구 | 134 | 서울용산구 | 131 | 서울용산구 | 134 |
| 서울동대문구 | 126 | 서울동대문구 | 130 | 서울영등포구 | 133 |
| 서울서초구 | 125 | 서울서초구 | 121 | 부산동구 | 130 |
| | | 대전유성구 | 120 | | |

자료: 1995, 2000, 2005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서울 종로구도 서울 중구와 마찬가지로 서울의 구도심의 한 지역이면서 여전히 중요한 일터이기도 하다. 1995년에 서울 종로구의 주간인구지수는 249로 상주인구에 대해 주간인구의 규모가 약 2.5배에 이르렀다. 2000년에는 이 규모가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5년에 다시 주간인구지수가 251로 1995년의 수준을 회복하였다.

서울의 도심부이면서 현재는 새로운 도심부나 다름없는 지역이 서울의 강남지역이다. 서울의 강남구의 주간인구지수는 1995년에 160, 2000년에 166, 2005년에 182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어느 면에서는 서울의 중심이 강남으로 옮겨간 듯한 인상을 주는데, 주간인구지수의 변화는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1995년과 2000년에 비해 2005년에는 서울의 주간인구지수가 더 높게 상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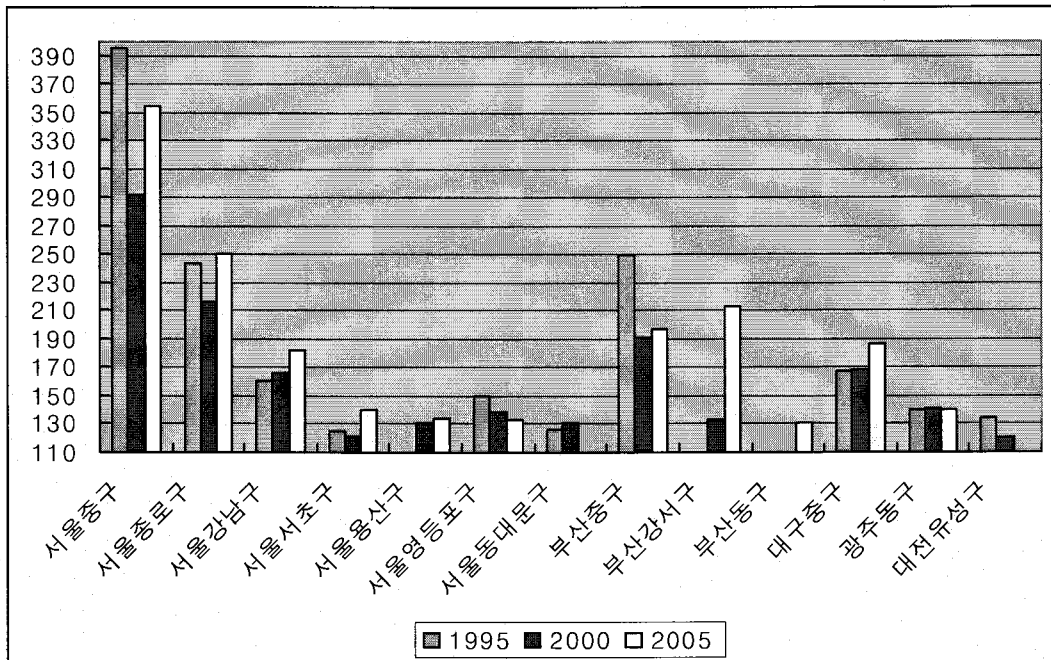
서울의 강남구와 함께 강남지역을 대표하는 서울 서초구의 경우 주간인구지수가 1995년에는 125에서 2000년에는 121로 약간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5년에는 주간인구지수가 140으로 높아지고 있다. 서울의 강남구와 서울의 서초구를 소위 강남지역의 핵심지역으로 본다면 2000년을 지나서 2005년에는 서울의 강남지역이 상주인구 가운데 유출되는 인구의 규모에 관계없이 주간

에 강남 이외의 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의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는 1997년 경제위기를 지나면서 서울의 강남지역은 새로운 서울의 중심부로 부상했고, 주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기 위해 몰려드는 지역이 되어가고 있음을 반영한다.

반면에 서울의 강북지역에 위치한 서울의 동대문구는 1995년과 2000년에는 주간인구지수가 120을 넘어 유입되는 주간인구의 규모가 컸으나 2005년에는 주간인구지수가 120 이하로 낮아져 더 이상 대규모의 주간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 아니다. 대전의 유성구도 주간인구지수가 1995년과 2000년에는 120 이상이었던지, 2005년에는 120 이하로 낮아졌다.

서울을 벗어나 부산으로 가보면, 부산의 강서구는 주간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5년에는 부산의 강서구는 주간인구지수가 120이하였다. 그러나 2000년에는 주간인구지수가 133이었고, 2005년에는 주간인구지수가 213으로 크게 높아졌다. 부산 강서구는 부산의 최도심부인 부산의 중구보다도 상주인구에 비해 주간인구의 규모가 제일 큰 지역으로 변하고 있다. 부산의 동구도 1995년과 2000년에는 상주인구에 비해 주간인구의 규모가 120을 넘지 않았는데, 2005년에는 주간인구의 상대적 비율이 큰 지역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주간인구지수의 변화: 1995-2005



반면에 대도시 가운데 주간인구지수가 90이하인 지역도 여럿 있다. 이 지역은 상주인구에 비해 주간인구가 오히려 최소 10% 이상 낮은 지역이다. 즉 이들 지역은 베드타운의 기능이 강하고, 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학업이나 일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주간에 유입되는 인구가 적은 지역이다. 서울의 경우 도봉구가 상주인구에 비해 주간인구가 가장 작은 지역이다. 도봉구 이외에도 중랑구, 강북구, 은평구, 관악구, 양천구, 강서구, 노원구 등은 서울에서 베드타운의 성격이 강함을 알 수 있다. 부산의 경우에

는 북구, 수영구, 해운대구가 이에 해당한다. 인천에서는 부평구와 계양구가 상주인구 가운데 유출되는 인구를 유입인구가 상쇄하지 못해 주간인구지수가 낮다(표 3 참조).

<표 3> 주간인구지수 90 이하인 주요 시구, 2005

| 지역 | 주간인구지수 |
|---------|--------|
| 서울 도봉구 | 76 |
| 부산 북구 | 77 |
| 울산 중구 | 78 |
| 서울 중랑구 | 79 |
| 서울 강북구 | 79 |
| 서울 은평구 | 80 |
| 서울 관악구 | 81 |
| 인천 연수구 | 82 |
| 서울 강동구 | 83 |
| 부산 수영구 | 83 |
| 서울 양천구 | 84 |
| 부산 해운대구 | 84 |
| 서울 강서구 | 85 |
| 인천 부평구 | 85 |
| 인천 계양구 | 85 |
| 광주 남구 | 85 |
| 서울 노원구 | 86 |
| 대구 동구 | 86 |
| 대구 서구 | 87 |
| 대구 수성구 | 89 |
| 대전 서구 | 89 |

자료: 2005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2. 통근·통학인구의 특성

통근·통학인구의 특성은 성, 연령, 교육수준, 직업 등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소절에서는 일단 통근·통학인구의 특성을 연령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다음 <표 4>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연령별 통근·통학 인구비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표 4>를 보면 먼저 통근·통학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10대임을 알 수 있다. 14세까지의 인구 가운데 98% 이상이 통학을 하고 있다. 이 연령층은 원칙적으로 노동하는 연령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학업을 위해 통학하는 학생이라고 볼 수 있다. 설사 같은 지역 내에서 통학을 하더라도 이 연령층은 매일 거의 대부분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19세까지의 연령 집단에서도 2005년 현재 87% 이상이 통근·통학을 하고 있다. 10대는 어느 연령층보다도 통근·통학의 비율이 큼을 <표 4>를 통해 알 수 있다.

20대에 이르면 통근·통학의 비율이 급격히 낮아진다. 15-19세 연령집단의 통근·통학 인구의 비율이 최소 88%에 달했었는데, 20-24세 연령집단 가운데 통근·통학 인구의 비율은 2005년 현재 60%로 급격히 감소한다. 그러다 25-29세 연령집단에서는 이 비율이 다시 2005년 현재 66%로 다시 증가한다.

10대에 비하면 20대 이상의 통근·통학 인구비율은 현저히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대부터 40대까지는 통근·통학 인구비율이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이 연령층의 통근·통학 인구비율은 최소 60%에서 최대 66% 정도에 걸쳐 있다. 그러나 50대에 접어들면 통근·통학

<표 4> 연령별 통근·통학 인구비율의 변화, 1995-2005

| 연령 | 1995 | 2000 | 2005 |
|--------|------|------|------|
| 12-14 | 99.6 | 99.6 | 98.9 |
| 15-19 | 89.5 | 88.8 | 87.7 |
| 20-24 | 62.8 | 62.0 | 60.4 |
| 25-29 | 60.9 | 63.9 | 66.3 |
| 30-34 | 59.1 | 61.7 | 62.6 |
| 35-39 | 61.7 | 64.6 | 64.9 |
| 40-44 | 62.9 | 65.1 | 66.2 |
| 45-49 | 61.5 | 62.7 | 62.9 |
| 50-54 | 58.7 | 57.0 | 57.1 |
| 55-59 | 53.6 | 49.2 | 47.8 |
| 60-64 | 29.9 | 41.2 | 37.4 |
| 65세 이상 | | 23.2 | 21.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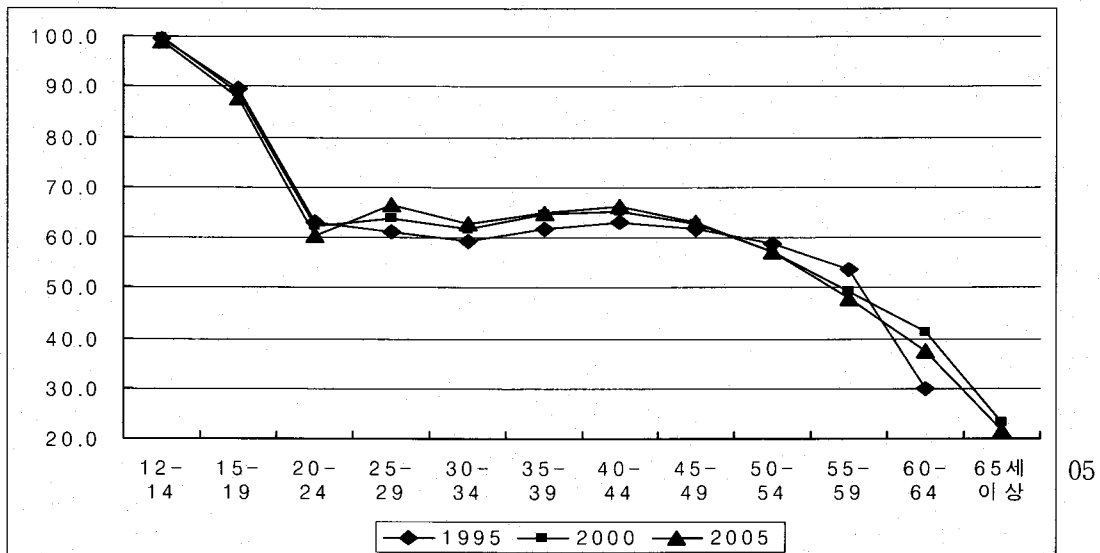
주: 1995년은 60세 이상의 인구중 통근·통학 인구비율임.
 자료: 1995, 2000, 2005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인구비율이 다시 감소하기 시작한다. 2005년 현재 50-54세의 통근·통학 인구비율은 57%, 55-59세는 48%로 낮아지고, 60-64세 연령집단에서는 다시 37%로 낮아짐을 볼 수 있다.

시기별 변화를 보면 10대와 20대 초반까지는 1995년부터 2005년에 이르기까지 통근·통학 인구비율이 꾸준히 감소한다. 그러나 20대 후반부터 40대 후반까지는 오히려 1995년부터 2005년까지 통근·통학 인구비율이 꾸준히 증가한다.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연령에 따른 통근·통학 인구의 비율만을 보기 때문에 정확히 해석하기 어렵지만, 이 중년층에서 통근·통학 인구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여성들이 노동력시장에 진출하는 경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50대 및 그 이상의 연령층에 이르면 증가와 감소가 혼재되어 있다. 고령인구의 고용 기회와 확대 혹은 고령층에서 일하려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통근·통학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고령연령층에서 실제로 통근하는 인구의 규모는 크게 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 연령별 통근·통학인구 비율의 변화, 1995-2005



다음 <표 5>부터 <표 7>까지는 전체 인구를 비통근·통학 및 통근·통학의 형태에 따라 연령별로 보여주고 있다.

<표 5> 통근·통학형태별 연령구조, 1995

| 이동형태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
|---------|--------|--------|--------|--------|--------|--------|
| 비통근·통학 | 3.88 | 33.11 | 39.45 | 37.73 | 43.49 | 69.50 |
| 같은 시군구내 | 75.79 | 34.33 | 37.01 | 40.45 | 41.04 | 27.06 |
| 다른 시군구로 | 20.33 | 32.56 | 23.54 | 21.82 | 15.46 | 3.44 |
| 합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자료: 1995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표 6> 통근·통학형태별 연령구조, 2000

| 이동형태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
|---------|--------|--------|--------|--------|--------|--------|
| 비통근·통학 | 4.85 | 31.03 | 36.54 | 35.43 | 46.24 | 69.92 |
| 같은 시군구내 | 78.45 | 37.14 | 39.77 | 42.86 | 39.13 | 27.02 |
| 다른 시군구로 | 16.70 | 31.84 | 23.69 | 21.70 | 14.63 | 3.06 |
| 합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자료: 2000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표 7> 통근·통학형태별 연령구조,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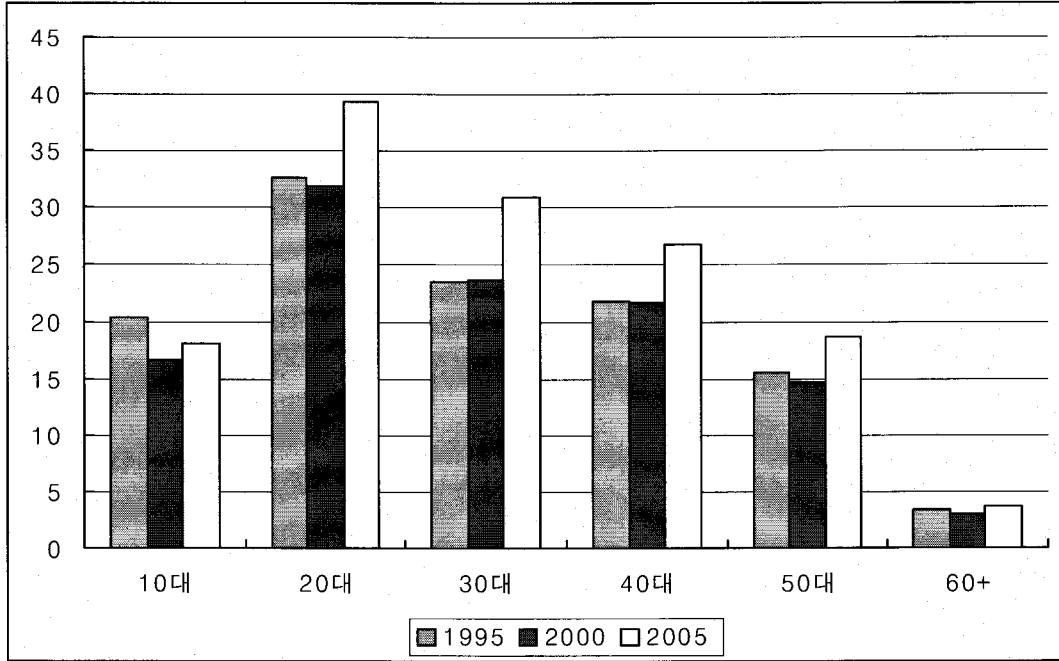
| 이동형태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
|---------|--------|--------|--------|--------|--------|--------|
| 비통근·통학 | 4.45 | 30.85 | 36.07 | 34.81 | 45.19 | 68.48 |
| 같은 시군구내 | 77.41 | 29.82 | 32.99 | 38.54 | 36.22 | 27.78 |
| 다른 시군구로 | 18.14 | 39.33 | 30.94 | 26.84 | 18.59 | 3.74 |
| 합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자료: 2000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10대는 대부분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이 연령층에서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비율은 가장 높지만, 이들은 대다수가 같은 시군구 내에서 통근·통학을 한다. 2000년에 10대 가운데 78.5%는 같은 시군구내에서 통근·통학을 했고, 1995년과 2005년에도 이 비율은 최저 76%에 달했다.

그러나 20대 이상은 비통근·통학, 같은 시군구내 통근·통학,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의 추세가 10대와는 상이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2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1995년부터 시기가 지날수록 다른 지역으로 통근·통학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5년과 2000년 사이에는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비율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는 20대, 30대, 40대, 50대에서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비율에 증가가 나타난다. 10대는 감소하는데 20대 및 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비율이 2000년 이후 왜 증가하는지 그 이유를 현재로서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통근·통학인구 가운데 다른 시군구도 통근·통학하는 비율이 2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모두 한결같이 증가하고 있다.

<그림 4> 연령별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인구 비율의 변화, 1995-2005



다음은 통근·통학 인구의 특성을 직업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다음 <표 8>부터 <표 10>은 비통근·통학, 같은 시군구내 통근·통학, 다른 시군구내 통근·통학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8> 직업별 통근·통학형태, 1995

| 이동형태 \ 직업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비통근·통학 | 4.31 | 5.37 | 3.65 | 2.11 | 23.83 | 18.73 | 6.13 | 8.74 | 9.20 | 8.75 |
| 같은 시군구내 | 43.53 | 44.79 | 44.92 | 47.08 | 53.03 | 50.03 | 92.67 | 55.81 | 59.95 | 62.96 |
| 다른 시군구로 | 52.16 | 49.84 | 51.43 | 50.81 | 23.14 | 31.24 | 1.20 | 35.45 | 30.84 | 28.29 |
| 합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주: 직업 1.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 전문가, 3. 준전문가, 4. 사무직, 5. 서비스직, 6. 판매직, 7. 농림어업직, 8. 기능직, 9. 장치, 조립직, 10. 단순노무직

자료: 1995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표 9> 직업별 통근·통학형태, 2000

| 이동형태 \ 직업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비통근·통학 | 3.53 | 3.88 | 3.46 | 2.17 | 16.03 | 11.91 | 0.41 | 6.34 | 7.53 | 7.09 |
| 같은 시군구내 | 46.96 | 49.84 | 48.72 | 52.19 | 62.03 | 57.98 | 97.82 | 59.89 | 61.95 | 67.10 |
| 다른 시군구로 | 49.50 | 46.28 | 47.82 | 45.64 | 21.94 | 30.11 | 1.76 | 33.77 | 30.52 | 25.80 |
| 합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주: 직업 1.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 전문가, 3. 준전문가, 4. 사무직, 5. 서비스직, 6. 판매직, 7. 농림어업직, 8. 기능직, 9. 장치, 조립직, 10. 단순노무직

자료: 2000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표 10> 직업별 통근·통학형태, 2005

| 이동형태 \ 직업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비통근·통학 | 4.71 | 4.19 | 3.96 | 2.78 | 12.69 | 9.65 | 5.00 | 6.20 | 7.60 | 7.82 |
| 같은 시군구내 | 39.90 | 41.83 | 42.40 | 40.24 | 58.04 | 50.59 | 93.33 | 52.53 | 54.55 | 60.84 |
| 다른 시군구로 | 55.38 | 53.98 | 53.64 | 56.97 | 29.27 | 39.76 | 1.67 | 41.27 | 41.27 | 31.34 |
| 합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주: 직업 1.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 전문가, 3. 준전문가, 4. 사무직, 5. 서비스직, 6. 판매직, 7. 농림어업직, 8. 기능직, 9. 장차, 조립직, 10. 단순노무직

자료: 2005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먼저 <표 10>의 2005년의 직업별 통근·통학형태를 보자. 10개의 범주로 구분된 직업 가운데 통근·통학을 하지 않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시에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직업군은 서비스직이다. 2005년 현재 서비스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12.7%는 통근·통학을 하지 않고, 현업에 종사하고 있다. 서비스직 다음으로 통근·통학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직업은 판매직이다. 2005년 현재 판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9.65%는 통근·통학을 하지 않고 거주지와 동일한 지역에서 판매직에 종사하고 있다.

반면에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거주지에서 일하는 경우는 2005년 현재 3% 미만이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57%가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을 하고 있다. 고위 임원직이나 관리직, 전문가, 준전문가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거의 모두 통근·통학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다른 시군구로 이동하여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50%를 넘는다.

그러나 기능직, 장차·조립직, 단순노무직 등에 종사하는 경우 통근·통학을 하더라도 같은 시군구내에서 움직이는 비율이 다른 시군구로 확대하여 이동하는 비율보다 더 높다.

이를 요약하면 사무직 이상의 직업 위세가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대부분 통근·통학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 같은 시군구보다는 다른 시군구로 넘어서 통근을 하고 있다. 그러나 판매직과 서비스직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통근을 하지 않고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 이들의 경우에 통근을 하더라도 다른 시군구로 넘어 통근하는 비율보다는 같은 시군구내에서 통근을 하며 일하는 비율이 높다. 기능직 등 직업 위세가 낮은 직종에서는 통근을 하는 비율이 높지만 살고 있는 거주지와 같은 시군구에 위치한 곳에서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다른 시군구로 넘어 통근하는 비율보다 높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세 개 시점의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해서 직업별 통근·통학 인구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서비스직과 판매직에서 비통근·통학의 인구비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비스직의 경우 1995년에 출퇴근을 하지 않고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23.8%였다. 그러나 이 비율이 2000년에는 16%로 감소하고, 2005년에는 12.7%로 감소하고 있다. 판매직의 경우에도 비통근·통학의 비율이 1995년에는 18.7%에서 2000년에는 11.9%로 크게 감소하고, 2005년에 이 비율이 9.65%로 약간 더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감소한 비통근·통학인구가 대부분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서비스직과 판매직을 제외한 다른 직종에서도, 농림어업직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직종에서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IV. 수도권 통근·통학인구

제 3절에서는 전국 수준에서 통근·통학과 주간인구의 특성을 살펴보고, 아울러 통근·통학인구의 연령별, 직업별 특성을 통해 각각의 인구특성을 살펴보았다. 모든 분석을 전국적인 수준에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통근·통학 및 주간인구의 문제가 수도권에서 가장 큰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하의 분석은 수도권에 한정하여 좀더 자세히 통근·통학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수도권 통근·통학 형태

우리는 <표 1>을 통해 이미 서울, 인천 및 경기 지역의 통근·통학 인구의 비율의 변화를 살펴 보았다. 서울 전체 인구 가운데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통근·통학을 하는 인구의 비율은 1995년 64.6%, 2000년 63.7%, 2005년 61.3%로 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일상생활에서 일일 인구이동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의 경우에는 서울보다 약간 낮지만 1995년 63.1%, 2000년 63.1%, 2005년 61.6% 등 역시 60% 이상이 매일의 삶속에서 일일 인구이동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도권에서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경기도 지역에서는 1995년 62.8%, 2000년 63.9%, 2005년 62.6% 등으로 역시 경기도 지역에서도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매일 매일 일일 인구이동을 경험하고 있다.

통근·통학인구 가운데 우리의 관심은 같은 시군구보다도 다른 시군구로 경계를 넘어 이동하는 인구에 있다. 왜냐하면 상주인구와 주간인구를 구별짓는 제일의 요소가 상주인구 가운데 다른 시군구로 유출되는 인구와 다른 시군구에서 유입되는 인구의 차이이기 때문이다. 다음 <표 11>은 서울의 각 구별로 그리고 인천 및 경기도의 여러 시 지역별로 각 지역에서 매일 다른 시군구로 유출되는 인구가 각 지역의 상주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에서 구별 인구 가운데 매일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인구 비율이 가장 작은 구는 중구이다. 중구에서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인구가 차지하는 인구비율은 1995년 24.5%, 2000년 24.4%, 2005년 24.7% 등 거의 변함이 없으면서 25%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중구 다음으로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비율이 구의 전체 인구 가운데 30%에 못 미치는 구는 종로구이다. 종로구의 경우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비율이 1995년에 26.5%, 2000년에 24.5%, 2005년에 28.5%로 중구보다는 높지만, 다른 구보다는 낮으면서 30%미만만이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을 하고 있다.

서울의 중구와 종로구는 주간인구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임을 우리는 이미 앞에서 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 이처럼 주간인구지수가 높은 서울의 도심부 지역에 거주하는 상주인구 가운데 매일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비율은 서울의 모든 구 가운데 가장 낮은 것이다. 이는 중구나 종로구의 경우 주간인구가 높은데에는 다른 구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많지만, 중구나 종로구에 거주하는 상주인구 가운데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정도도 다른 구에 비해 훨씬 적고, 이 또한 중구나 종로구의 주간인구지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서울, 인천 및 경기 지역 만 12세 이상 인구 중 다른 시군구 통근·통학 인구 비율
(단위: %)

| 지역 | 1995 | 2000 | 2005 | 지역 | 1995 | 2000 | 2005 |
|-------|------|------|------|-------|------|------|-------|
| 서울 전체 | 35.2 | 30.8 | 36.1 | 인천 | 30.2 | 26.2 | 31.2 |
| 종로구 | 26.5 | 24.5 | 28.5 | 수원 | 17.8 | 19.6 | 38.9 |
| 중구 | 24.5 | 24.4 | 24.7 | 성남 수정 | 22.2 | 21.7 | 36.8* |
| 용산구 | 32.2 | 27.5 | 34.1 | 성남 분당 | 38.0 | 33.5 | 36.4 |
| 성동구 | 25.9 | 31.3 | 36.6 | 의정부 | 28.4 | 29.5 | 29.1 |
| 광진구 | 35.2 | 31.7 | 37.8 | 안양 | 30.9 | 31.2 | 37.5 |
| 동대문구 | 31.1 | 24.7 | 31.8 | 부천 | 27.7 | 26.5 | 35.0 |
| 중랑구 | 35.7 | 31.3 | 35.9 | 광명 | 38.9 | 36.3 | 36.6 |
| 성북구 | 35.4 | 29.9 | 36.0 | 평택 | 10.3 | 10.0 | 11.3 |
| 강북구 | 40.2 | 33.2 | 37.6 | 동두천 | 17.4 | 16.4 | 19.0 |
| 도봉구 | 39.5 | 38.3 | 39.7 | 안산 | 15.0 | 18.5 | 29.6 |
| 노원구 | 37.6 | 33.7 | 35.5 | 고양 덕양 | 36.1 | 30.7 | 34.1 |
| 은평구 | 36.6 | 29.8 | 34.5 | 고양 일산 | | 29.9 | 34.9* |
| 서대문구 | 34.6 | 31.1 | 38.2 | 과천 | 44.3 | 41.1 | 38.0 |
| 마포구 | 34.4 | 29.6 | 37.5 | 구리 | 34.4 | 32.9 | 33.6 |
| 양천구 | 37.7 | 35.3 | 38.4 | 남양주 | 24.9 | 29.8 | 27.2 |
| 강서구 | 33.6 | 29.4 | 36.9 | 오산 | 23.4 | 28.0 | 35.4 |
| 구로구 | 34.9 | 33.4 | 38.7 | 시흥 | 32.6 | 30.7 | 26.7 |
| 금천구 | 37.1 | 31.5 | 34.3 | 군포 | 40.1 | 38.7 | 37.1 |
| 영등포구 | 31.1 | 29.0 | 36.5 | 의왕 | 43.1 | 43.0 | 41.6 |
| 동작구 | 41.1 | 33.8 | 41.6 | 하남 | 35.2 | 33.6 | 30.6 |
| 관악구 | 37.6 | 30.9 | 38.7 | 용인 | 10.8 | 25.3 | 31.0 |
| 서초구 | 36.1 | 31.1 | 37.0 | 파주 | | 14.3 | 16.9 |
| 강남구 | 30.9 | 24.9 | 30.1 | 이천 | | 8.6 | 8.6 |
| 송파구 | 34.3 | 29.5 | 33.9 | 안성 | | 11.1 | 11.1 |
| 강동구 | 32.5 | 32.3 | 35.2 | 김포 | | 17.9 | 20.4 |
| | | | | 양주 | | 13.4 | 23.3 |
| | | | | 여주 | | | 8.5 |
| | | | | 화성 | | | 22.3 |
| | | | | 광주 | | | 25.3 |
| | | | | 연천 | | | 7.2 |
| | | | | 가평 | 7.1 | | |
| | | | | 양평 | 8.5 | | |
| | | | | 포천 | 6.7 | | |

주: 성남 수정은 2005년에 성남 수정구와 중원구를 포함, 고양 일산은 2005년 고양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를 포함함.

자료: 1995, 2000, 2005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중구나 종로구를 제외한 서울의 다른 구에서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비율은 30-42% 사이에 놓여 있다. 2005년 현재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을 임의로 몇 개 꼽아보면, 먼저 동작구를 들 수 있다. 동작구의 경우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비율이 무려 41.6%에 달한다. 전체 인구(실제로는 공부하거나 일하는 사람의 경우)의 40% 이상이 다른 시군구로 이동하면서 주간에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동작구의 상주인구 가운데 많은 인구는 동작구보다는 다른 시군구에 생업의 터전을 두고 있는 것이다. 동작구 다음으로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은 도봉구이다. 도봉구는 앞에서 이미 주간인구지수가 서울 및 대도시 지역에서 가장 낮은 지역임을 확인했었다. 그런데 도봉구의 인구 가운데 매일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비율은 동작구보다는 약간 낮은 39.7%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도봉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일하거나 공부할 때 다른 시군구로 옮겨가 일하거나 공부하게 되고, 반면에 다른 시군구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주간에는 인구가 대폭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즉 도봉구는 상주인구의 속성인 베드타운의 속성이 강하다.

서울의 새로운 도심부의 하나인 강남구의 경우에는 구도심부인 중구나 종로구와 유사한 형태를 보여준다. 강남구에서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비율은 1995년에 30.9%에서 2000년에 24.9%로 크게 감소했다가 2005년에는 다시 30.1%로 증가한다. 그러나 강남구도 주간 인구지수가 매우 높은 지역이고, 이는 유출인구가 적거나 유입인구가 많아야 가능한 현상인데, 다른 시군구로 유출되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유출인구가 적으면서 동시에 유입인구는 많으면서 결과적으로 주간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인천의 경우 매일 다른 시군구로 인구이동을 하는 경우는 2005년 현재 31.2%이다. 일을 하거나 공부하는 10명 중 3명은 다른 시군구로 이동하고 있는 셈이다. 경기 지역에 있는 시 지역에서 다른 시군구도 이동하는 인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과천, 군포, 의왕이 눈에 띈다. 의왕에서는 1995년에 43.1%, 2000년에 43%, 2005년에 41.6%의 인구가 경계를 넘어 이동하면서 일이나 공부를 하였다. 비율이 매우 높으면서 변화율이 크지 않다. 과천의 경우 1995년에는 일하는 인구의 44.3%가 다른 시군구로 이동하면서 일을 하였다. 그러나 이 비율이 2000년에는 41.1%로 감소하더니 2005년에는 3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래도 다른 시군구로 이동하면서 일을 하는 인구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군포시의 경우 1995년에는 40.1%, 2000년에는 38.7%, 2005년에는 37.1%로 지속적으로 비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그래도 높은 비율로 다른 시군구에서 일하고 있다.

1995년부터 2005년에 이르면서 다른 시군구로 이동하면서 일을 하는 통근·통학 인구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몇 지역이 있다. 성남 수정과 중원 지역에서 다른 시군구로 이동하면서 일을 하는 비율은 1995년에는 22.2%였다. 그러나 2005년에 이르면 이 비율이 36.8%로 크게 증가한다. 안양의 경우에도 1995년에는 30.9%에 머물러 있었지만 2005년에는 이 비율이 37.5%로 증가하였다. 부천의 경우에도 1995년에 27.7%였던 다른 시군구로 이동하는 비율이 2005년에는 35%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안산의 경우에도 1995년에 15%에서 2005년에 29.6%로 대폭 증가하고 있고, 오산의 경우에도 1995년에 23.4%에서 2005년에 35.4%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서울, 인천 및 경기 일원에서 다른 시군구로 일일 인구이동을 하지만 이들의 이동방향은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다. 우리는 다음 <표 12>에서 서울, 인천 및 경기 지역에서 일일 인구이동을 하고 있는 주간인구들의 이동유형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을 점검하여 인구이동의 방향에 관한 일차적인 이해를 하고자 한다.

서울, 인천 및 경기 지역을 포함하는 수도권에서 이동하는 전체 인구 가운데 서울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주간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서울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주간인구가 수도권의 주간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에 52%에서 2000년에 42% 그리고 2005년에는 39.9%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경기지역에서 경기지역으로 일일 인구 이동하는 주간인구의 비율은 1995년 8.9%에서 2000년에 14.4% 그리고 2005년에는 22%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경기지역에서 서울로 일일 인구이동하는 주간인구가 수도권의 주간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에 17.5%에서 2000년에는 20%로 증가하였지만, 2005년에는 16.5%로 1995년의 수준보다 더 낮아지고 있다.

<표 12> 수도권내 주간인구 이동유형

| 이동유형 | 1995 | 2000 | 2005 |
|---------|-------|-------|-------|
| 서울 → 서울 | 52.0 | 42.1 | 39.9 |
| 서울 → 인천 | 1.2 | 1.2 | 1.0 |
| 서울 → 경기 | 7.8 | 10.2 | 8.0 |
| 인천 → 서울 | 2.5 | 3.0 | 2.2 |
| 인천 → 인천 | 7.5 | 5.3 | 6.6 |
| 인천 → 경기 | 1.4 | 2.3 | 2.2 |
| 경기 → 서울 | 17.5 | 20.1 | 16.5 |
| 경기 → 인천 | 1.1 | 1.4 | 1.6 |
| 경기 → 경기 | 8.9 | 14.4 | 22.0 |
| 합 | 100.0 | 100.0 | 100.0 |

자료: 1995, 2000, 2005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표 12>에 제시된 수도권내 주간인구의 이동유형은 중요한 점을 말해주고 있다. 수도권이 확장하면서 과거에는 서울에 집중되었던 일자리가 이제 서울 밖으로도 확대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과거에는 서울에 일자리가 있어도 서울에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경기 지역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주간에 이동하는 인구가 많았다면, 이제는 서울이 일터의 측면에서 수도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경기 지역에 살면서 같은 경기 지역으로 통근·통학하면서 생업을 유지하는 비율이 훨씬 더 증가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서울 내에서 움직이는 주간인구의 비율은 수도권의 주간인구 전체 가운데에서는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인구의 비율은 전체 수도권의 통근·통학인구 비율에서는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 서울내에서 이동하는 통근·통학자들의 이동유형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다음 <표 13>은 서울내에서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이동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표 13> 서울내 주간인구 이동유형의 변화

| 이동유형 | 1995 | 2000 | 2005 |
|---------|-------|-------|-------|
| 강북 → 강북 | 37.4 | 35.9 | 33.9 |
| 강북 → 강남 | 15.4 | 16.7 | 17.4 |
| 강남 → 강북 | 19.8 | 19.4 | 18.6 |
| 강남 → 강남 | 27.4 | 28.0 | 30.1 |
| 합 | 100.0 | 100.0 | 100.0 |

자료: 1995, 2000, 2005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서울내에서 주간인구의 이동유형을 살펴보면 2005년 현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주간인구의 이동유형은 강북에서 강북으로 이동하는 이동유형이다. 이 유형이 서울 내에서 이동하는 주간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37.4%에서 2000년에는 35.9% 그리고 2005년에는 다시 33.9%로 감소하고 있다. 비록 2005년에 33.9%로 감소하고 있어도 네 인구이동 유형 가운데에서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 주요 이동유형은 강남에서 강남으로 이동하는 유형이다. 서울 내의 주간인구 가운데 강남에서 강남으로 이동하는 유형이 1995년에 27.4%에서 2000년에는 28%로 그리고 다시 2005년에는 30.1%로 증가하고 있다. 강북에서 강북으로 이동하는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강남에서 강남으로 이동하는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는 것이다.

비록 비율의 변화는 적지만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동하는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반면에 강남에서 강북으로 이동하는 유형은 아주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강남에서 강남으로 이동하는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과 더불어 이러한 현상은 서울 내에서는 주간인구의 흐름이 강남으로 옮겨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2. 수도권 주간인구의 변화

이제 이 절에서는 수도권 주간인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표 14>를 통해서 서울의 주간인구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보자. 서울에서 유출되는 인구에 비해 유입되는 인구의 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중구이다. 1995년에는 유출인구에 비해 유입 인구가 13배, 2000년에는 거의 10배, 2005년에는 12배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간인구지수도 1995년에는 395, 2000년에는 292, 그리고 2005년에는 다시 354를 기록하고 있다. 중구 다음으로 유입대 유출의 인구비가 높은 곳은 종로구이다. 종로구의 유입 대 유출 인구비는 1995년에 6.5, 2000년에 6.4, 그리고 2005년에 7.0을 기록하고 있다. 중구보다는 낮은 수치이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유출에 비해 유입이 매우 높은 지역의 하나이다. 이 결과 주간인구지수가 1995년에는 244, 2000년에는 216 그리고 2005년에 다시 251로 증가하였다.

서울 구 도심부의 두 구를 제외하면 서울 강남구의 유입대 유출 비가 가장 크다. 서울 강남구

<표 14> 서울의 유입·유출 비 및 주간인구지수의 변화

| 구 | 유입/유출 | | | 주간인구지수 | | | 지수의 변화량 1995-2000 | 지수의 변화량 2000-2005 |
|------|-------|------|------|--------|------|------|----------------------|----------------------|
| | 1995 | 2000 | 2005 | 1995 | 2000 | 2005 | | |
| 종로구 | 6.5 | 6.4 | 7.0 | 244 | 216 | 251 | -28 | 35 |
| 중구 | 13.1 | 9.8 | 12.0 | 395 | 292 | 354 | -103 | 62 |
| 용산구 | 2.1 | 2.3 | 2.1 | 135 | 131 | 134 | 4 | 3 |
| 성동구 | 1.4 | 1.1 | 1.0 | 115 | 104 | 100 | -11 | -4 |
| 광진구 | 0.4 | 0.7 | 0.8 | 80 | 92 | 94 | 12 | 2 |
| 동대문구 | 1.8 | 2.4 | 1.4 | 126 | 130 | 112 | 4 | -18 |
| 중랑구 | 0.4 | 0.4 | 0.3 | 78 | 83 | 79 | 5 | -4 |
| 성북구 | 0.9 | 0.9 | 0.9 | 96 | 98 | 97 | 2 | -1 |
| 강북구 | 0.2 | 0.4 | 0.4 | 69 | 82 | 79 | 13 | -3 |
| 도봉구 | 0.6 | 0.5 | 0.3 | 83 | 81 | 76 | -2 | -5 |
| 노원구 | 0.5 | 0.4 | 0.5 | 80 | 85 | 86 | 5 | 1 |
| 은평구 | 0.4 | 0.4 | 0.3 | 79 | 84 | 80 | 5 | -4 |
| 서대문구 | 1.3 | 1.4 | 1.3 | 112 | 110 | 108 | -2 | -2 |
| 마포구 | 1.1 | 1.2 | 1.2 | 102 | 106 | 106 | 4 | 0 |
| 양천구 | 0.4 | 0.4 | 0.5 | 76 | 82 | 84 | 6 | 2 |
| 강서구 | 0.7 | 0.7 | 0.5 | 90 | 93 | 85 | 3 | -8 |
| 구로구 | 1.3 | 1.1 | 1.0 | 111 | 101 | 101 | -10 | 0 |
| 금천구 | 0.5 | 0.6 | 1.0 | 80 | 89 | 99 | 9 | -10 |
| 영등포구 | 2.5 | 2.5 | 2.0 | 150 | 138 | 133 | -12 | -5 |
| 동작구 | 0.5 | 0.6 | 0.7 | 81 | 90 | 91 | 9 | 1 |
| 관악구 | 0.5 | 0.6 | 0.4 | 81 | 88 | 81 | 7 | -7 |
| 서초구 | 1.7 | 1.7 | 2.2 | 125 | 121 | 140 | -4 | 19 |
| 강남구 | 2.9 | 3.9 | 4.0 | 160 | 166 | 182 | 6 | 16 |
| 송파구 | 0.7 | 0.8 | 0.9 | 90 | 95 | 97 | 5 | 2 |
| 강동구 | 0.5 | 0.5 | 0.4 | 84 | 86 | 83 | 2 | -3 |

자료: 1995, 2000, 2005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의 유입대 유출 인구비를 살펴보면 1995년에 2.9, 2000년에 3.9, 그리고 다시 2005년에는 4.0을 기록하여 중구나 종로구 등은 2000년에 유입 대 유출 인구비가 감소하지만, 강남구는 감소 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유입 대 유출의 비가 1이면 유입인구와 유출인구가 동일하기 때문에 주간인구가 상주인구와 비슷한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유입 대 유출의 비가 1 이하로 내려가면 상주인구를 제외한다면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이 된다. 은평구의 유입 대 유출의 비는 1995년에 0.4, 2000년에 0.4 그리고 2005년에 0.3을 기록하여 유입에 비해 유출이 현저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은평구와 비슷한 곳은 서울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양천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등이 역시 유입에 비해 유출이 많은 곳이고, 많은 곳은 결국 베트타운의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다.

<표 15> 인천 및 경기 시부 주간인구지수의 변화

| 구 | 유입/유출 | | | 주간인구지수 | | | | | |
|--------|-------|------|------|--------|------|------|-----------|-----------|--|
| | 1995 | 2000 | 2005 | 1995 | 2000 | 2005 | 지수의 변화량 | | |
| | | | | | | | 1995-2000 | 2000-2005 | |
| 인천 중구 | 4.6 | 3.7 | 4.9 | 191 | 145 | 171 | -46 | 26 | |
| 인천 동구 | 1.0 | 1.7 | 1.4 | 100 | 115 | 112 | 15 | -3 | |
| 인천 남구 | 1.0 | 1.1 | 0.9 | 100 | 101 | 96 | 1 | -5 | |
| 인천 연수구 | 0.2 | 0.3 | 0.4 | 64 | 78 | 82 | 14 | 4 | |
| 인천 남동구 | 0.9 | 0.9 | 1.2 | 98 | 98 | 106 | 0 | 8 | |
| 인천 부평구 | 0.9 | 0.5 | 0.5 | 96 | 89 | 85 | -7 | -4 | |
| 인천 계양구 | 0.3 | 0.3 | 0.5 | 74 | 86 | 85 | 12 | -1 | |
| 인천 서구 | 0.8 | 0.8 | 0.8 | 96 | 96 | 95 | 0 | -1 | |
| 수원시 | 1.1 | 1.0 | 0.6 | 102 | 99 | 93 | -3 | -6 | |
| 성남시 | 0.5 | 0.5 | 0.7 | 82 | 89 | 92 | 7 | 3 | |
| 의정부시 | 0.7 | 0.6 | 0.5 | 93 | 89 | 87 | -4 | -2 | |
| 안양시 | 0.6 | 0.8 | 0.7 | 89 | 94 | 92 | 5 | -2 | |
| 부천시 | 0.5 | 0.6 | 0.6 | 86 | 91 | 90 | 5 | -1 | |
| 광명시 | 0.3 | 0.3 | 0.4 | 71 | 80 | 80 | 9 | 0 | |
| 평택시 | 0.9 | 1.1 | 1.3 | 99 | 101 | 103 | 2 | 2 | |
| 동두천시 | 0.9 | 0.9 | 0.6 | 99 | 98 | 92 | -1 | -6 | |
| 안산시 | 1.3 | 1.2 | 0.9 | 105 | 103 | 98 | -2 | -5 | |
| 고양시 | 0.3 | 0.4 | 0.5 | 76 | 85 | 88 | 9 | 3 | |
| 파천시 | 1.1 | 1.1 | 1.5 | 102 | 105 | 115 | 3 | 10 | |
| 구리시 | 0.6 | 0.7 | 0.6 | 85 | 92 | 90 | 7 | -2 | |
| 남양주시 | 0.5 | 0.3 | 0.3 | 87 | 84 | 85 | -3 | 1 | |
| 오산시 | 1.5 | 1.0 | 0.7 | 112 | 100 | 93 | -12 | -7 | |
| 시흥시 | 0.9 | 0.7 | 1.0 | 96 | 94 | 101 | -2 | 7 | |
| 군포시 | 0.4 | 0.4 | 0.5 | 76 | 83 | 86 | 7 | 3 | |
| 의왕시 | 0.4 | 0.4 | 0.4 | 75 | 80 | 81 | 5 | 1 | |
| 하남시 | 0.3 | 0.6 | 0.8 | 76 | 88 | 94 | 12 | 6 | |
| 용인시 | 1.0 | 1.2 | 0.8 | 115 | 104 | 95 | -11 | -9 | |
| 파주시 | 1.9 | 1.0 | 1.0 | 98 | 100 | 100 | 2 | 0 | |
| 이천시 | 1.9 | 1.7 | 1.6 | 107 | 105 | 104 | -2 | -1 | |
| 안성시 | 0.8 | 1.9 | 1.6 | 106 | 108 | 106 | 2 | -2 | |
| 김포시 | 2.8 | 1.9 | 1.4 | 125 | 114 | 106 | -11 | -8 | |
| 화성시 | | | 2.6 | | | 129 | | | |
| 광주시 | | | 1.0 | | | 99 | | | |
| 양주시 | | | 0.9 | | | 98 | | | |
| 포천시 | | | 4.0 | | | 118 | | | |

주: 용인, 파주, 이천, 안성, 김포는 1995년에는 군부이었음.

자료: 1995, 2000, 2005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서울에 이어서 인천을 비롯한 경기 지역의 주간인구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인천에서도 인천 중구는 중심부답게 유출인구에 비해 유입인구가 훨씬 많다. 그래서 유입인구 대 유출인구의 비를 구하면 인천 중구는 1995년에 4.6, 2000년에 3.7 그리고 2005년에 4.9를 기록하여 2000년에 일시적으로 주간인구지수가 감소하였지만, 결론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인천 중구를 제외하면 2005년에 파주시의 유입인구 대 유출인구의 비가 4.0에 이르러 유출인구에 비해 유입인구가 4배나 많음을 알 수 있다. 인천의 각 구를 포함하여 경기도에 속한 각 시의 유입 대 유출인구의 비를 구하여 보면, 결론적으로 비가 1.0을 넘어서 상주인구를 제외하면 주간인구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는 지역은 인천동구(1.4), 인천 남동구(1.2), 평택시(1.3), 과천시(1.5), 시흥시(1.0), 이천시(1.6), 안성시(1.6), 김포시(1.4), 화성시(2.6), 광주시(1.0) 정도에 불과하다. 그 외의 수많은 경기 시지역에서는 유입 인구보다는 유출인구가 더 많다.

인천 및 경기 지역에서 유입에 비해 유출 인구가 많은 곳의 몇 예를 들면 인천 연수구는 1995년에는 유입 대 유출의 비가 0.2에 불과했다. 2005년에 겨우 0.4를 기록했다. 인천 계양구도 1995년에 0.3, 2000년에 0.3을 기록했고, 2005년에 0.5 수준에 도달했다. 성남시나 의정부시, 고양시, 군포시, 의왕시 그리고 안양시도 유입 인구에 비해 유출 인구의 폭이 훨씬 크다.

2005년 현재 유입 인구에 비해 유출 인구가 더 많아 유입 대 유출의 비가 1 이하 이면서도 주간인구지수가 100 이상인 지역은 단 곳도 없다. 즉 유입에 비해 유출 인구가 많은 지역은 배출 요인이 강한 지역의 성격상 주간에 다른 곳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그다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

서울의 주간인구지수는 매우 높은 편이다. 또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지역을 총괄하여 주간 인구가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사이에 오고가는 현황을 분석한 표를 보았을 때 서울로 몰려들 정도의 위상이 지금은 약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절에서는 서울의 각 구에 유입되는 인구가 많은 순으로 5개 정도를 골라 살펴보자. 1995년과 2000년은 이미 은기수(2000)에서 상세하게 분석했기 때문에 이 절에서는 2005년만 예를 들기로 한다.¹⁾

다음 <표 16>은 서울의 구 가운데 주간인구지수가 100 이상인 구만 뽑은 후 각각의 구에 유입되는 유입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부터 낮은 곳으로 다섯군대를 뽑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서울 외곽에 건설되었던 신도시들이 서울에서 상주인구 혹은 통근·통학인구로 서울의 각 구에 주간인구를 증가하는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표 16>을 통해 살펴보자. 고양시는 종로구에 유입되는 유입 인구 가운데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종로구에 네 번째로 많은 주간인구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중구의 경우에는 중구에 유입되는 통근·통학인구 중 고양시가 가장 많은 유입인구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마포구의 경우에도 새로 유입되는 인구 가운데 고양시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 종로구에 유입되는 주간인구 가운데는 고양시가 4위를 차지하고 있다.

1) 1995년과 2000년 현재 서울에서 주간인구지수가 높은 지역에 어디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은지는 은기수(2002)에서 상세히 분석했다. 지면의 한계상 1995년과 2000년의 분석은 여기서 생략한다. 자세한 내용은 은기수(2002)를 참조하기 바란다.

<표 16> 주간인구지수가 100이상인 서울의 구별 주간인구 유입지, 2005

| 구 \ 유입지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 종로구 | 서대문구(6.57) | 성북구(6.49) | 노원구(6.02) | 고양시(5.73) | 은평구(5.60) |
| 중구 | 고양시(5.38) | 노원구(5.22) | 성북구(4.57) | 마포구(4.45) | 성동구(4.37) |
| 용산구 | 동작구(5.58) | 관악구(4.84) | 영등포구(4.76) | 마포구(4.56) | 인천시(4.35) |
| 성동구 | 광진구(9.75) | 노원구(5.89) | 동대문구(5.83) | 중랑구(5.34) | 송파구(4.63) |
| 동대문구 | 중랑구(11.90) | 노원구(8.07) | 성북구(7.87) | 광진구(5.46) | 도봉구(4.51) |
| 서대문구 | 은평구(10.00) | 고양시(9.20) | 마포구(8.79) | 강남구(4.40) | 강서구(4.15) |
| 마포구 | 고양시(8.53) | 서대문구(7.35) | 은평구(6.63) | 강서구(5.90) | 인천시(5.45) |
| 구로구 | 인천시(10.60) | 부천시(9.62) | 광명시(7.66) | 양천구(6.98) | 영등포구(6.26) |
| 영등포구 | 강서구(8.75) | 양천구(8.38) | 구로구(7.05) | 인천시(6.60) | 관악구(5.52) |
| 서초구 | 성남시(8.15) | 강남구(8.09) | 관악구(7.50) | 동작구(6.62) | 용인시(4.72) |
| 강남구 | 성남시(7.94) | 송파구(7.67) | 관악구(5.95) | 서초구(5.31) | 동작구(3.94) |

자료: 2005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성남시의 경우에는 서초구에 유입되는 주간인구 중 가장 많은 주간인구를 공급하고 있고 (8.15%), 강남구에 유입되는 주간인구 가운데에서도 가장 많은 주간인구를 공급하고 있다 (7.94%).

인천시의 경우에는 구로구에 공급되는 주간인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주간인구를 공급하고 있다(10.60%). 이외에도 영등포구에 유입되는 인구 중 인천시 출신이 6.6%로 제4위를 달리고 있고, 마포구에 유입되는 인구 가운데는 인천시가 5.45%로 제5위를 달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리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용인지역에서는 서초구에 공급되는 주간인구 가운데 5위에 해당하는 만큼의 주간인구를 서초구에 공급하고 있다.

서울 지역내에서는 노원구가 서울의 주간인구지수가 높은 지역에 유입인구를 많이 보내고 있다.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에 유입되는 인구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유입인구가 노원구에서 온다. 종로구에 유입되는 인구 중 세 번째로 많은 인구가 역시 노원구에서 온다.

도봉구와 함께 주간인구지수가 낮은 곳 가운데 하나인 서울의 은평구는 서대문구에 유입되는 주간인구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를 서대문구에 보내고 있다. 서대문구에 유입되는 주간인구의 제일 많은 인구가 은평구에서 온다. 마포구 또한 은평구에서 많은 주간인구를 받아들이고 있다. 마포구에 유입되는 주간인구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인구가 은평구에서 오고 있다. 도심부인 종로구에 유입되는 주간인구 가운데 다섯 번째로 많은 주간인구도 은평구에서 오고 있다. 이처럼 주간인구지수가 낮은 은평구는 서울의 도심부 및 도심부에 인접한 서울의 중심 지역에 많은 주간인구를 보내고 있다.

주간인구지수가 가장 낮은 곳이 도봉구였는데, 의외로 도봉구가 배출하는 인구가 서울에서 주간인구지수가 높은 곳으로 유입되는 비율은 적은 것 같다. 동대문구에 유입되는 주간인구 가운데 다섯 번째로 많은 인구가 도봉구에서 올 뿐, 다른 주간인구지수가 높은 서울 지역에 도봉구의 주간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것은 아님을 <표 16>은 보여준다.

서울의 한강 이남 지역이면서 우리가 소위 “강남”이라 부르는 서울의 강남구와 서초구를 보면 서초구에 유입되는 주간인구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주간인구가 강남구에서 유입된다. 다른 한 편 강남구에 유입되는 주간인구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주간인구 또한 서초구에서 유입된다. 이처럼 강남구와 서초구는 소위 서울의 “강남”을 형성하면서 강남구에 살면서 통근통

학은 서초구로 하거나, 서초구에 살면서 통근·통학은 강남구로 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다.

한 편 서울의 관악구는 서울의 신 도심부인 강남과 영등포 지역에 주간인구를 많이 보내는 배후지역할을 하고 있다. 관악구는 서초구와 강남구에 주간인구를 많이 유입시키는데, 강남구와 서초구에 유입되는 주간인구 중 각각 세 번째로 많은 인구가 서울의 관악구에서 온다. 여의도를 포함하고 있는 영등포구의 유입인구는 주위의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그리고 인천시에서 많이 온다. 그러나 관악구도 영등포구에 주간인구를 많이 보내는 순서로 보면 다섯 번째로 영등포구에 많은 인구를 유입시키고 있다.

서울의 입장에서는 서울 내에서 일일 인구이동이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하지만, 서울 외곽에 위치한 지역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주간인구가 가장 많이 이동하는 지역이 서울일 수도 있다. 최근으로 올수록 경기 내에서 일일 인구이동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서울 주위의 도시는 소위 서울의 위성도시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상주는 서울 외곽에서 하지만, 주간에는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가 많다.²⁾

<표 17> 경기의 일부 시별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주간유출인구의 통근·통학지, 2005³⁾

| 유출지 시 | 제1순위 | 제2순위 | 제3순위 | 제4순위 | 제5순위 |
|----------|-------------|------------|-------------|------------|------------------------|
| 인천시 | 영등포구(12.62) | 강남구(10.94) | 구로구(10.24) | 중구(7.20) | 강서구(6.54) |
| 수원시 | 강남구(19.62) | 서초구(12.88) | 중구(7.57) | 영등포구(6.86) | 용산구(5.32) |
| 성남시 | 강남구(30.02) | 서초구(15.59) | 송파구(14.04) | 중구(6.17) | 종로구(3.78) |
| 의정부시 | 노원구(15.33) | 도봉구(11.38) | 종로구(8.78) | 강남구(8.68) | 동대문구(7.81) |
| 안양시 | 강남구(17.04) | 서초구(15.15) | 중구(8.20) | 금천구(7.85) | 영등포구(6.94) |
| 부천시 | 영등포구(12.17) | 구로구(11.80) | 강서구(9.19) | 강남구(8.67) | 양천구(7.21) |
| 광명시 | 구로구(15.50) | 금천구(15.33) | 영등포구(10.68) | 강남구(9.99) | 서초구(6.37) |
| 고양시 | 중구(13.04) | 종로구(10.72) | 강남구(9.76) | 영등포구(9.33) | 서대문구(8.79) |
| 과천시 | 서초구(27.05) | 강남구(15.98) | 중구(9.43) | 관악구(7.79) | 종로구(7.38) 동작구(7.38) |
| 구리시 | 강남구(13.34) | 광진구(10.84) | 중랑구(10.08) | 송파구(8.24) | 성동구(7.63) |
| 남양주시 | 강남구(13.90) | 중랑구(9.24) | 노원구(8.74) | 동대문구(8.54) | 중구(7.75) |
| 군포시 | 강남구(20.29) | 서초구(14.08) | 구로구(8.59) | 중구(8.41) | 영등포구(6.58) |
| 용인시 | 강남구(31.96) | 서초구(20.05) | 송파구(9.08) | 중구(5.74) | 종로구(4.46) |
| 하남시 | 강동구(28.60) | 송파구(19.14) | 강남구(15.64) | 광진구(4.94) | 중구(4.73) |

자료: 2005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표 17>에서 단연 눈에 띄는 현상은 서울 주위의 경기도 시 지역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첫 번째 유입지는 단연 서울의 강남구라는 점이다. 용인시(32%), 성남시(30%), 군포시(20.3%), 수원시(19.6%), 안양시(17%), 과천시(16%), 하남시(15.6%), 남양주시(13.9%), 구리시(13.3%), 인천시(10.9%), 광명시(10%), 고양시(9.8%), 의정부시(8.7%), 부천시(8.7%) 등 서울의 인근에 위치한 경기도 시 지역에서 주간에 배출하는 인구가 가장 많이 유입되는 지역 5개 지역에 서울의 강남구가 포함되어 있다.

강남구와 마찬가지로 서초구로 서울의 소위 “강남” 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경기도의 시 지역에서 서울로 배출되는 주간인구 가운데 서초구에 유입되는 인구도 비중이 크다. 과천에서 주

2) 여기에 관한 분석도 1995년과 2000년에는 은기수(2002)에서 상세하게 이루어졌다. 1995년과 2000년에 관해서는 은기수(2002)를 참조하기 바란다.

3) 이 표에 제시된 주간인구는 인천과 경기도를 떠나 서울로 유입되는 주간인구만을 다루고 있다.

간에 서울로 배출하는 주간인구의 가장 많은 인구가 서초구(27%)로 유입된다. 용인시를 떠나 서울로 향하는 주간인구도 20%가 역시 서초구로 유입된다. 성남시(15.6%), 안양시(15%), 군포시(14%), 수원시(13%)도 서울로 배출하는 주간인구 중 역시 서초구로 주간인구를 많이 보내고 있다. 광명시의 경우에는 서초구에 아주 많은 주간인구를 보내는 것은 아니지만 광명시를 떠나 서울로 유입되는 주간인구 가운데 다섯 번째로 많은 인구가 서초구(6.37%)로 유입되고 있다.

강남구와 서초구를 분리하지 않고 함께 묶어서 소위 “강남” 이라고 간주한다면 서울 주위의 경기 시지역에 살면서 통근-통학은 강남으로 하는 비율은 매우 높다. 예를 들어 용인시는 서울로 주간인구로 배출하는 인구 가운데 서울의 강남구와 서초구로 유입되는 인구를 합하면 용인시가 서울로 배출하는 주간인구의 52%가 서울의 “강남” 지역으로 일일 인구가 이동하고 있다. 과천시와 고양시의 경우에도 배출하는 주간인구의 43%가 서울의 “강남”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성남시의 경우에는 36%, 군포시의 경우에는 34%, 수원시의 경우에는 32%, 안양시의 경우에는 32% 등 매우 높은 비율로 서울의 “강남” 지역으로 통근-통학을 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 주위의 경기도 시지역은 서울의 “강남” 지역에 주간인구를 공급하는 배후지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 내에서 주간인구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이 서울 중구이다. 서울 중구는 상주인구가 13만 명이 채 안 되는, 상주인구가 매우 작은 지역이다. 그러나 상주인구에 비해 주간에 통근-통학으로 유입되는 주간인구가 많아 주간인구지수는 매우 높다. 이처럼 높은 주간인구지수를 기록하는데는 고양시와 중구 주위의 서울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기 때문임을 우리는 <표 16>에서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시지역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들의 서울로 이동하는 주간인구가 가장 많이 이동하는 지역에 서울의 최도심부인 중구가 포함되어 있다. 서울의 “강남” 지역에 유입시키는 인구의 규모에 비하면 비록 적다고 해도, 서울 중구는 경기도에서 주간에 서울로 배출하는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5대 지역의 하나로 존재하고 있다. 고양시(13%), 과천시(9.4%), 군포시(8.4%), 안양시(8.2%), 수원시(7.6%), 인천시(7.2%), 성남시(6.2%), 용인시(5.7%), 하남시(4.7%) 등에서 서울로 배출하는 주간인구가 서울지역으로 유입되는 5대 지역의 하나로 서울의 중구를 올리고 있다.

서울의 중구와 종로구는 서울의 전통적인 도심부이고, 서울의 강남구와 서초구 등은 서울의 부심부이자 최근에는 새로운 도심부로 인정받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의 다른 한 축은 여의도를 중심으로 하는 영등포지역이다. 영등포 지역도 역시 서울 인근의 경기도 시지역에서 서울로 유입되는 주간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지역의 하나이다. 영등포 지역은 인천시가 서울로 배출하는 주간인구 가운데 가장 많은 주간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다(12.6%). 인천시 외에도 부천시(12.2%), 고양시(9.3%), 수원시(6.9%), 안양시(6.9%), 군포시(6.6%)의 서울로 유입되는 주간인구가 역시 서울의 도심부의 하나인 영등포 지역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다.

서울의 인근에 있는 경기 시지역 가운데 서울의 중심부나 부도심부로 주간인구를 별로 많이 보내지 않는 곳은 의정부시이다. 의정부시에서 서울로 유출되는 주간인구는 주로 노원구와 도봉구로 유입되고 있다. 그러나 의정부시의 경우에도 서울의 구도심부인 종로구에 8.8%의 주간인구가 들어가고 있고, 강남구에도 8.7%의 주간인구가 들어가고 있어서 꼭 서울의 중심부나 부도심부로 주간인구를 배출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다만 상대적으로 서울의 중심부나 부도심부에 배출하는 인구의 규모가 다른 경기 시 지역에 비해 작다는 것일뿐 역시 주간인구의 상당량이 서울로 유입되고 있다. 하남시의 경우에는 바로 인접한 강동구에 가장 많은 주간인구가 유입되고 있고(28.6%), 서울의 “강남” 으로 간주되기도 하는 송파구에도 서울로 배출되는

주간인구의 19%가 유입되고 있다. 하남시의 경우에도 서울 강남구에 15.6%의 주간인구를 보내면서 동시에 중구에도 4.7%의 하남시 주간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이처럼 <표 17>은 서울의 인근에 위치한 경기도 시 지역에서 서울로 배출하는 주간인구 가운데 소위 서울의 새로운 도심부인 “강남” 지역에 가장 많은 인구를 공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서울의 남쪽에 위치한 경기도 시 지역은 서울 “강남” 지역에 주간인구를 공급하는 배후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2) 통근·통학 소요시간

서울의 외곽지역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서울 밖에 상주하면서 통근·통학을 서울로 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 외곽의 경기도 지역에 살면서 서울로 오고 가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다음 <표 18>을 통해 살펴보자.⁴⁾

먼저 30분 이내의 통근·통학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20%를 넘는 경우는 광명시에서 서울로 유입되는 주간인구의 경우이다. 광명시에서 서울시로 유입되는 주간인구의 22.2%는 30분 이내에 자신의 일터에 도착한다. 이보다는 못하지만 과천시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16%는 30분 이내의 시간이 걸린다. 하남시의 경우에는 18.7%가 30분 이내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로 인접한 강동구로 출퇴근하는 주간인구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30분에서 45분 사이에 목적지에 도달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은 과천시(42.4%), 구리시(41.3%), 성남수정, 중원구(38.6%), 하남시(38%), 성남분당구(34.5%), 광명(34.1%), 고양덕양(32.6%) 등으로 나타난다. 이들 지역에서 서울로 유입되는 주간인구는 비교적 빠른 시간내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기 지역에서 서울로 통근·통학 하는 경우 단시간에 목적지에 도달하기 힘들다. 경기 지역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경우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사이에 목적지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다. 군포시(56.3%)와 의왕시(50.7%)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주간인구의 50% 이상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사이의 시간을 들여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고 있다. 용인시(47.8%), 안양시(47.3%), 수원시(46%), 고양일산(45.4%), 광주(44.6%), 부천(40.4%), 안산(41%) 등은 서울로 일일 인구 이동하는 주간인구의 40% 이상이 1시간-1시간 30분 사이의 시간을 들여 최종 목적지로 이동한다. 그 외의 경기 지역에서는 동두천과 과천, 하남, 이천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주간인구의 30% 이상이 1시간 이상의 시간을 들여 서울로 이동하고 있다.

때로는 1시간 30분 이상의 시간을 들여 통근·통학하기도 한다. 혹은 두시간 이상을 걸리면서 서울로 통근·통학하기도 한다. 동두천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파주, 이천, 포천, 안성 등지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할 때도 2시간 이상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2시간 이상 걸리는 약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평택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경우 서울로 유입되는 주간인구의 42%는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사이의 시간을 들여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고 있다.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사이의 시간을 들여 통근·통학을 하는 경우가 많은 지역은 평택 이외에도 오산, 이천, 시흥, 안산, 수원, 화성 등지이다. 이에 못 미치지만 인천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주간인구의 29%는 1시간 30분에서 2시간

4) 2000년의 통근·통학에 걸리는 시간은 은기수(2002)를 참조하기 바란다.

사이의 시간을 들여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고 있다.

이들의 교통수단에 따라 통근·통학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르겠지만, 서울의 배후지 역할을 하면서 주간인구를 공급하고 있는 이들 지역에서 서울로 오고가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들의 통근·통학에 걸리는 시간을 분석하면서 이해할 수 있다.

<표 18> 인천 및 경기지역에서 서울로 통근·통학에 소요되는 시간, 2005

(단위: %)

| 출발지 | 15분미만 | 15-29분 | 30-44분 | 45-59분 | 60-89분 | 90-119분 | 120분 이상 |
|-----------|-------|--------|--------|--------|--------|---------|---------|
| 인천 | 0.2 | 1.2 | 11.7 | 4.1 | 42.7 | 28.6 | 11.5 |
| 수원 | 0.0 | 0.2 | 8.6 | 5.2 | 46.0 | 31.0 | 9.0 |
| 성남 수정, 중원 | 0.6 | 10.2 | 38.6 | 10.4 | 30.6 | 8.2 | 1.4 |
| 성남 분당 | 0.1 | 2.9 | 34.5 | 11.3 | 36.5 | 11.6 | 3.2 |
| 의정부 | 0.8 | 5.2 | 26.8 | 7.5 | 35.4 | 18.6 | 5.7 |
| 안양 | 0.5 | 3.9 | 27.4 | 10.2 | 47.3 | 9.7 | 1.1 |
| 부천 | 1.1 | 5.5 | 27.6 | 6.2 | 40.4 | 15.5 | 3.8 |
| 광명 | 4.2 | 18.0 | 34.1 | 6.5 | 30.3 | 6.4 | 0.5 |
| 평택 | 0.0 | 0.0 | 1.7 | 1.7 | 38.3 | 41.7 | 16.7 |
| 동두천* | 0.0 | 0.0 | 0.0 | 6.4 | 27.7 | 23.4 | 42.6 |
| 안산 | 0.2 | 0.4 | 10.8 | 3.9 | 41.0 | 31.0 | 12.9 |
| 고양 덕양 | 0.1 | 4.5 | 32.6 | 9.2 | 39.0 | 12.9 | 1.7 |
| 고양 일산 | 0.1 | 1.0 | 19.5 | 9.2 | 45.4 | 20.3 | 4.5 |
| 과천 | 3.4 | 12.7 | 42.4 | 12.2 | 28.2 | 0.8 | 0.0 |
| 구리 | 1.7 | 11.5 | 41.3 | 8.5 | 30.1 | 6.5 | 0.5 |
| 남양주 | 0.1 | 5.1 | 23.3 | 8.0 | 39.4 | 18.4 | 5.7 |
| 오산* | 0.0 | 0.0 | 4.7 | 9.3 | 30.2 | 39.5 | 16.3 |
| 시흥 | 0.0 | 2.3 | 18.8 | 3.6 | 32.6 | 30.6 | 12.1 |
| 군포 | 0.2 | 0.7 | 16.8 | 9.1 | 56.3 | 14.8 | 2.1 |
| 의왕 | 0.0 | 2.5 | 24.3 | 9.1 | 50.7 | 12.0 | 1.5 |
| 하남 | 2.7 | 16.0 | 38.0 | 3.5 | 25.7 | 6.4 | 2.9 |
| 용인 | 0.1 | 0.2 | 13.0 | 8.8 | 47.8 | 21.4 | 8.7 |
| 파주 | 0.0 | 0.0 | 10.1 | 3.2 | 39.3 | 26.7 | 20.7 |
| 이천* | 0.0 | 0.0 | 0.0 | 3.6 | 28.6 | 39.3 | 28.6 |
| 안성* | 5.0 | 5.0 | 0.0 | 5.0 | 30.0 | 30.0 | 25.0 |
| 김포 | 0.3 | 4.3 | 26.8 | 6.2 | 35.6 | 18.6 | 8.2 |
| 화성 | 0.0 | 1.1 | 7.7 | 4.4 | 37.4 | 34.1 | 15.4 |
| 광주 | 0.6 | 0.9 | 22.9 | 9.3 | 44.6 | 17.5 | 4.2 |
| 양주 | 1.0 | 2.0 | 8.3 | 5.4 | 33.3 | 30.9 | 19.1 |
| 포천* | 0.0 | 0.0 | 14.3 | 6.1 | 30.6 | 20.4 | 28.6 |

주: 1) * 60 사례 이하임.

2) 원자료가 범주로 되어 있어 평균, 표준편차 등을 계산하지 않음

자료: 2005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V. 결론

이 연구는 인구학적 연구에서는 사실상 무시되어 온 일일 인구이동을 다루고 있다. 인구학적 연구에서 인구이동은 1년 사이의 이동을 단기이동으로 간주하고, 1년 이상의 사이에 이루어진 인구이동을 장기이동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단기이동의 경우 1년 사이에 거주지 변화가 있었는지를 검토하고 장기이동의 경우 5년 사이에 거주지 변화가 있었는지를 검토한다. 그러나 단기

이동이든 장기이동이든 이동의 경험이 단 한 번이 아니라 얼마든지 반복이동이 가능한 상황 속에서 1년 전 거주지와 5년 전 거주지 정보를 이용해서 장단기 인구이동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제약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인구학적 연구에서는 소외되어 왔지만, 현실 생활 속에서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는 인구이동은 일일 인구이동이다. 통계청의 자료 생산의 측면에서는 통근·통학과 주간인구라고 표기되어 있는 인구이동이 바로 일일 인구이동이다. 전 인구의 절반가까이가 서울 및 경기 지역, 즉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시도의 경계를 넘어 매일 인구이동이 이루어지는데,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일일 인구이동의 방향과 규모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로 인구가 집중되는 이농현상이 오래 전부터 일어났지만 서울에 모든 이동자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 주위에 수많은 위성도시가 건설되어왔다. 그래서 생업은 서울에서 영위하지만 상주는 서울 주위의 수도권에서 하는 생활유형이 오래 전부터 자리를 잡아왔다.

이 연구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통근·통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성별, 각 지역별 유출과 유입, 주간인구지수를 통해 살펴 보았다. 전반적으로는 통근·통학인구가 각 지역별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10대는 학업을 위해 거의 대부분 통학을 하고 있다. 그러나 10대의 교육이 끝나면 20대에는 통근·통학하는 비율이 갑자기 낮아진다. 그래서 20대부터 30대 및 40대까지는 통근·통학자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그러다 50대부터는 다시 통근·통학자의 비율이 낮아진다.

전국적인 수준에서 직업에 따라 통근·통학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판매직과 서비스직이 상대적으로 통근·통학을 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 그러나 직업위세가 강한 직종에서는 거의 50% 이상이 다른 시군구도 통근을 하면서 생업을 영위하는 현상이 강하다. 반면에 직업위세가 약한 직종에서는 다른 시군구로 통근하기 보다는 같은 시군구내에서 통근·통학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시계열적으로는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일일 인구이동은 수도권에서 그 의미가 더 강하다. 이 연구는 수도권의 인구이동 현상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 내의 일일 인구이동에서 서울 내에서 주간 인구이동을 하는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일일 인구이동을 하는 전체 이동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경기도 내에서 주간 인구이동을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하면서 비단 서울에서만 생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서울 밖의 경기도 지역에서도 수도권의 인구가 생업을 영위하고 거주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에서 주간인구지수가 120이상인 지역을 골라 그 지역에 유입되는 인구가 어디서 오는지 살펴보았다. 또 경기 지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주간인구가 서울의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는지도 살펴보았다. 서울의 경우 서울 내에서도 중구, 종로구를 중심으로 하는 구도심부, 강남구와 서초구를 중심으로 하는 강남 부도심부, 여의도를 중심으로 하는 영등포 부도심부가 있고, 이들 지역은 인천, 일산, 분당 등의 신도시 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지만 소위 서울의 베드타운 지역과 각 도심부의 인근 지역에서 유입되는 주간인구가 많음을 확인했다. 경기 지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주간인구의 경우 가장 많은 경우는 강남구와 서초구로 대표되는 소위 서울의 “강남” 지역으로 가장 많은 주간인구가 유입되고 있었다. 이들 주간인구는

“강남” 지역만이 아니라 중구로 표현되는 구 도심부에도 많이 유입되고 있었다.

경기 지역에서 서울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과천 등지에서는 비교적 통근·통학을 통해 서울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은 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거의 한 시간에 가까운 통근·통학 시간을 걸려 서울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고 있다. 때로는 두시간에 가깝거나 두시간 이상을 들여 서울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통근·통학자도 경기 지역에는 존재한다.

이 연구는 일일 인구이동을 다루어 한국인의 매일의 삶이 얼마나 역동적인지를 알 수 있었다. 특히 수도권 일일 인구이동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한국 사회의 최 중심지인 서울 및 주위의 지역에서 매일 이루어지는 인구이동을 통해 서울 내에서도 과연 어디가 한국사회의 중심지역인지에 관해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일일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는 학술적인 의의뿐만 아니라 사회정책적으로도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무엇보다도 일일 인구이동의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매일 가장 많은 주간인구가 물리는 지역이 어디인지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의 중심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동방향과 이동에 걸리는 시간, 이동에 이용하는 수단의 분석을 통해 교통행정의 측면에서는 새로운 교통정책을 펼치는데 중요한 기본 자료를 축적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런 측면에서 통근·통학에 소용되는 시간에 관한 분석을 했고, 이러한 분석이 앞으로 수도권에서 교통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도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일일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는 현실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이면서 인구학자들 사이에서는 별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문이다. 이 연구를 통해 이 분야의 연구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은기수. 1997. “주야간활동인구 개념” 『비전 중구 2000-상주인구회복과 인간위주 환경조성을 위한 장기발전방안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_____. 2000. “도심부의 인구문제” 김창석 외 공저. 『도시중심부연구』. 제7 장. 서울:보성각.
- _____. 2001. “상주인구와 주간인구의 계층구조 비교분석: 서울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제24권 제1호.
- _____. 2002. “제15장. 통근·통학 및 주간인구” 김두섭·박상태·은기수(편). 『한국의 인구』 2. 통계청.
- 통계청. 1997. “우리나라 인구의 거주지 이동 및 통근·통학 현황” 제3회 통계의 날 기념 심포지움 발표 논문. 통계청.